

전남 동부권, '탄핵 정국' 속 민생 안정에 행정력 집중

여수·고흥 등 민생대책반 운영 지역경제·안전 등 분야별 가동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검토

여수시와 고흥군 등 전남 동부권 시군들이 '탄핵 정국' 속 지역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민생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6일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날 오전 시장실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긴급 민생안정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날 긴급회의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시는 △행정지원 △지역경제 △취약계층 지원 △안전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해 민생 안정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현안 등 지방행정 업무의 안정적 수행 △지역 체감경기 회복 및 소비진작을 위한 적극 예산집행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 등 누수 없는 복지사업

추진 △경찰·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 사고 대비태세 확립 등의 대책도 논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민생안정대책반을 구성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탄핵정국으로 국가가 혼란스럽고 우리 시는 산단 경기 위축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시민 모두가 매우 어려운 연말연시를 맞이하고 있다"며 "민생안정대책반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카드형 지역상품권 발행과 예비비 활용 등 당장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방안들을 신속히 검토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고흥군도 이날 주요 부서장과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탄핵정국에 따른 군민 불안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군은 △지방행정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안전관리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민생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군정 공백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절기를 맞아 장애인, 소년소녀



정기명 여수시장이 16일 오전 시장실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긴급 민생안정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가장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대설·한파 및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읍면 유관기관 및 이장·부녀회장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들의 지역 상권 이용을 독려하는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군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군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현재 상황이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취약계층 보호와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심정우 기자

'유용미생물 지원사업' 농가 호응 순천시, 친환경 농·축산업 지원

순천시는 안전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용미생물 지원사업이 친환경 농업의 확대와 가축 분뇨 악취저감 및 토양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순천시미생물센터는 연간 800톤에 달하는 8종의 유용 미생물을 생산해 농업인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미생물센터에서는 액상 6종(광합성균, 고초균, 효모균, 유산균, BL균, BT제)과 고형 2종(분말형보조사료와 팠릿형 토양개량제)의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BT제는 안전성이 검증된 천연 미생물 살충제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고흥미생물 축산농가용 친환경 보조사료인 생균제는 사료효율 및 기호성 증진, 소화흡수율 향상과 축사 내 악취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축산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대비 수요량이 120톤 증가했으며,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권역별 배달제 시행으로 배달 건수가 전년 990여 농가에서 올해 1200여 농가로 늘어났다. 순천=배서준 기자

'신재생 에너지보급' 사업비 확보 고흥군, 30억 최종 확정

고흥군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가 주관하고 전국 155개 지자체가 신청한 2025년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융복합 지원) 공모에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개인주택, 산업단지, 복지시설 등에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구축, 전기료와 난방비를 절감하고 군민 에너지 복지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2025년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점암, 영남, 과역, 남양, 동강, 대서 등 북부권역 6개 면, 324개소(태양광 주택 254개, 태양열 주택 56개, 공공 및 건물 14개)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3개 참여기업이 마을별 순회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주택 3kW(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기 사용량에 따라 월 4만~5만원가량의 전기요금 절감이 기대된다. 또 주택 13.5㎡(온수통 600ℓ) 규모의 태양열 집열기를 통해 생산된 열로 온수를 사용하면 연료비를 월 6만~7만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내년 북부권역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26년 산업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공모로 도덕, 금산, 봉래, 동일 등 마지막 미보급 지역까지 신청, 2030년 완전한 에너지 자립군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지난 2021년 도양읍 등 남부권역에 사업비 10억7900만원을 투입해 140개소(태양광 135개, 태양열 5개)를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고흥, 풍양, 도화, 포두, 두원 등 중부권역에 17억6800만원을 투입, 245개소(태양광 234개, 태양열 11개)를 지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지난 13일 여수시 광림동 내동마을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에서 주민들이 이·미용 서비스를 받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내동마을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여수시는 지난 13일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가 여수시 광림동 내동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심에서 떨어져 생활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문화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는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난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날 내동경로당에는 4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초기 문진, 인바디검사, 혈압·혈당 검사, 치매검사, 스트레스 검사, 키오스크 교육, 안마서비스, 손발 마사지, 이·미용, 네일아트, 칼갈이, 방향제 만들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특히 이웃과 함께 팝콘을 즐기면서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하는 시간을 갖고 귀가 시 후원품도 제공해 주민들의 호응

이 이어졌다.

김미희 내동마을 통장은 "새벽부터 장소를 마련하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다.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염색과 네일아트를 받으며 설레기도 하는 등 내동마을 주민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정종인 광림동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민들께 소소한 행복을 전해주는 전남행복버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동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담양군, 겨울철 집중 '노로바이러스' 주의 당부

담양군은 겨울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16일 일상 속 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일반 세균과 달리 낮은 온도에서 활동이 활발해지는 특성이 있어 추운 날씨로 인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소홀해지는 겨울철에 감염이 급증한다.

주요 감염 경로는 오염된 음식 혹은 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지만, 감염자(분변, 구토물)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된다.

잠복기는 평균 12~48시간으로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주요 증상이 있으며 사람에게 따라서는 오한, 발열도 나타난다.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

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먹기(특히 굴, 생선, 조개 등 어패류) △개인 식기 사용, 식재료 세척, 물 끓여 마시기 △감염증 환자 발생 시 환자의 구토물, 분고리, 화장실 등 접촉한 부분 소독하기 등 수칙을 지켜야 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겨울철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증가하는 계절인 만큼 개인위생 관리에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